

News

고승범 "가계부채 관리 강화 일관되게 추진할것"

파이낸셜뉴스

고승범 금융위원장, "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일관되게 추진할 것" 강조… 총량관리 기반하되, 시스템관리 강화하며 증가세를 4~5% 대로 정상화 언급 더불어 분할상환, 고정금리 대출 비중 높이며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…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별 세밀한 점검 및 연착륙 유도

다시 열리는 은행 대출문…한도 제한은 계속

연합인포맥스

은행들,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 재개…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며 대출 재개에 나설 예정
다만 한도를 크게 제한하는 등 선제적 총량 관리에 나서는 모습… 대출 한도 부여 및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에 나설 예정

'고신용대출 중단' 이어가는 카뱅… 다른 은행 영향은

뉴시스

카카오뱅크, 내년에도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… 판매 재개 여부는 금융시장 등 여건 감안해 결정 계획
인터넷전문은행에 부여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연간 목표를 맞추기 쉽지 않아 연초부터 관리 들어가기 때문… 다만 업계에서는 지속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
금리 오르는데…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.3%, 8년만에 최대

연합뉴스

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, 20년 11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.7% 차지… 2014년 1월 이후 변동금리 비중 최대 기록
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 위험 요인…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 검토할 것을 조언

1·2세대 실손보험료 16% 오른다… 3세대는 기준 8.9% 할인 종료

조선비즈

내년 1~3세대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을 평균은 약 14.2%… 이중 1·2세대 경우 평균 16% 정도 인상 예정… 3세대의 8.9% 할인혜택은 종료
손보협회는 지난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적극 장려할 방침… 4세대로 전환하는 1~3세대 계약자에 한해 6개월간 납입보험료의 50% 할인 방안 준비중

보험업계, 1200%를 확대 적용에 TM채널 비중 줄인다

아주경제

보험업계, 20년 3분기 말 기준 생보, 손보사 TM 채널 매출 전년 대비 감소… 누적 초회보험료는 5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% 급감
TM채널 비중을 줄이는 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200% 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… 다만 일부 보험사는 음성녹음 및 보관비용 처리 부담 전가 움직임으로 논란

'개미 떠나는 증시, IB로 채운다'…증권사 CEO 82% "IB 강화 주력"

뉴스1

증권사 CEO들,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증시에서 이탈하면서 올해는 IPO, 채권, PE 등 IB분야의 경영기여도 커질 것으로 전망
올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약 15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… 다만 해외주식투자 분야는 강화될 것으로 보여…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분야 확대도 방점

조기상환 지연에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 6.4조원 감소

이투데이

올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 14조 6,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조 4,000억원 감소… HSCEI 지수 하락 및 조기상환 지연 영향
ELS 발행액 11조 6,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 2,000억원 감소… DLS·DLB 발행액 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2,000억원 감소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